

국립공원 탐방로 이용에 대한 이용객 인식¹

-북한산, 치악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유기준² · 권태호³

Visitors' Perceptions on Trail Use in Korean National Parks¹

-Case Studies in Bukhansan and Chiaksan National Park-

Ki-Joon Yoo², Tae-Ho Kwon³

요 약

본 연구는 효율적인 국립공원 탐방로 관리를 위해 탐방로 이용행태 및 이용 관련 탐방객 인식을 파악하여 탐방로 이용 기초자료의 제공에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산 및 치악산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에서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 두 국립공원의 탐방로에는 수목 뿌리 노출, 암석 노출, 노폭확대가 주요 훼손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경사지의 시설도입 및 정비와 훼손된 노면의 정비가 가장 필요한 관리 및 정비의 우선순위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입지적 특성과 이용목적에 따라 훼손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탐방로 정비 및 관리 우선순위가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는 국립공원 탐방로 관리방안 마련에 있어 유용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설문조사, 탐방로 훼손, 관리 우선순위, 탐방로 관리 방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visitor and trail use data for developing trail management strategies in Korean national park system.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n at two different national parks(Bukhansan and Chiaksan National Park). As for the results, root and rock exposure on the trails and trail width expansion were perceived as major types of trail impact. In addition, majority of respondents pointed to construct or maintain facilities on steep paths and repair trail surface as for the priority of trail maintenance. In conclusion, the priority of trail management and maintenance has to be differently determined based on each trail conditions because visitor impacts on the trails vary along with site-specific and activity-specific differences. Findings of the study expect to be used as fundamentals in trail management strategy making for Korean national parks.

1 접수 9월 30일 Received on Sep. 30, 2004

2 상지대학교 경상대학 관광학부 Division of Tourism, Sangji Univ., Wonju(220-702), Korea

3 대구대학교 생명환경학부 Division of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 Daegu Univ., Gyongsan(712-714), Korea

KEY WORDS : QUESTIONNAIRE SURVEY, TRAIL IMPACT, PRIORITY OF TRAIL MAINTENANCE, TRAIL MANAGEMENT STRATEGIES

서론

우리나라 국민들의 산림 기반의 휴양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나 가장 보편적인 휴양활동은 역시 등산 또는 산행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한 조사(한국갤럽, 2001)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국민 중 연간 1회 이상의 등산인구가 1995년 55% 수준에서 2001년 75%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 5일 근무제 확대 실시에 따른 야외휴양 활동 측면에서도 등산의 비중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한국리서치, 2003). 우리나라의 야외휴양의 대표적 활동이라 할 수 있는 등산은 주로 명산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로 특히 국립공원의 경우 주요 등산대상지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들의 대표적인 야외휴양 대상지로서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지난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이 첫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국토의 4.5%에 이르는 20개의 국립공원이 지정·관리되고 있다(유기준 등, 2001).

한국의 국립공원은 국가의 중요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여를 하였으며 최근 들어 주 5일 근무제 확산 등을 통한 국민 여가 기회가 확대되면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형태는 등산으로 국립공원내 탐방로는 국립공원의 대표적 탐방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립공원 탐방로는 탐방객을 공원내 자연환경 공간과 연결시키는 공원의 기반시설로서 자연생태계와 인간과의 접촉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며 탐방객에게 자연 향유를 위한 휴양기회를 제공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에 의한 탐방로의 자연생태계에 영향도 피할 수는 없다.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립공원에서의 등산은 탐방객에 의한 탐방로 이용압력의 가장 요인이 되며 이는 탐방로와 같은 기반시설의 부하현상으로 이어져 공원 환경자원의 훼손 및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공원 탐방로에서의 훼손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공원 관리 주체는 탐방로 훼손요인을 분석하고 지형 및 토성(土性) 등 물리적 여건, 관련 자원의 효율적 보전성, 탐방객 이용행태 등을 고려하여 훼손제어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탐방로 훼손제어 방안은 크게 훼손원인으로서 탐방객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조절하

는 직접적 방안과 교육 또는 홍보 등의 매체를 통해 탐방객 행위를 간접적으로 변형시키는 간접적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립공원에서는 탐방로 훼손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탐방로 훼손 상태에 대한 복구 및 복원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국립공원내 탐방자원으로서 탐방로에 대한 훼손 문제는 탐방객에 의한 상대적 문제로서 이용주체인 탐방객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되어야 한다.

탐방로 관리는 탐방로 이용 주체인 탐방객의 탐방로 이용에 따른 태도 또는 인식의 파악이 기초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와 같은 탐방객 관련 기초 자료의 부족이라는 문제제기로부터 본 연구는 계획되었다. 이에 효율적인 국립공원 탐방로 관리를 위한 탐방로 이용행태 및 이용 관련 탐방객 인식을 파악하여 탐방로 이용 기초자료의 제공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탐방로 개념 및 현황

1. 탐방로 개념

국립공원에서는 공원의 지정목적과 부합하고 일반 산악등산로와 차별화된 이용행태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행자가 이용하는 등산로를 탐방로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특히, 환경해설 기능을 부여한 탐방로의 경우 자연학습탐방로로 구분하고 있다(산림청, 2004). 그러나 대다수 탐방객 및 일반국민들은 탐방로라는 단어보다는 국립공원내 모든 탐방로에 대해서 등산로로 통칭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탐방로를 진입도로가 끝나는 곳에서 국립공원의 탐방자원과 목적지를 연결하는 보행자 도로로 정의하고, 국립공원 내 이용행태와 탐방산행 문화 개선을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과거 등산로로 쓰던 용어를 모두 탐방로로 부르고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02). 미국, 영국 등의 영어권 국가에서는 트레일(Trail)로 통칭하나, Walk Pass, Greenway, Nature trail, Interpretive trail, Recreation trail, Scenic trail, Historic trail, Hiking trail 등 주로 기능적 구분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Table 1. Legal trails in Korean national parks(2002)

| Park | Num. of Trails | Length(km) | Park | Num. of Trails | Length(km) |
|---------------|----------------|------------|-------------------------|----------------|------------|
| Chirisan | 27 | 197.00 | Dadohae | 11 | 31.50 |
| Kyeryongsan | 10 | 29.30 | Chiaksan | 7 | 45.30 |
| Hanryehaesang | 9 | 17.51 | Weolaksan | 12 | 51.90 |
| Seolaksan | 15 | 77.00 | Bukhansan | 74 | 160.26 |
| Sokrisan | 12 | 90.10 | Sobaeksan | 12 | 97.40 |
| Neajangsan | 15 | 61.50 | Weolchulsan | 6 | 19.90 |
| Gayasan | 9 | 21.70 | Beonsanbando | 10 | 29.00 |
| Dukyusan | 11 | 68.80 | Hanllasan ¹⁾ | 6 | 41.80 |
| Odaesan | 5 | 29.80 | Kyungju ¹⁾ | 6 | 1.60 |
| Juwangsan | 7 | 38.00 | Sub Total | 264 | 1,109.37 |
| Total | | | | 252 | 1,065.97 |

¹⁾ Managed by local government

Source: National Park Authority(2002) National Park Trail Master plan

미국의 경우, National Trails System Act를 통해 일반 국민의 야외휴양 수요 충족과 경관지역 및 국가 역사 유적지의 쉬운 접근을 위해 탐방로의 국가적 체계를 구축하여 이에 관한 방법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USDI NPS, 1988). National Trails System Act에서는 국가 탐방로체계를 National recreation trails, National scenic trails, National historic trails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탐방로를 보도(歩道)라 부르며,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하는 자연공원 내의 보도, 장거리 자연보도 및 각종 지역의 자연네트워크 정비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 자연공원의 보도는 자연공원 이용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며 등산이용 목적에서 자연친화 이용까지 다양한 형태 및 기능에 따라 경관 감상, 자연탐방 등 자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일본 환경성, 2001).

2. 국립공원 탐방로 현황

Table 2. Illegal trails in Korean national parks(2002)

| Park | Num. of Trails | Length(km) | Park | Num. of Trails | Length(km) |
|---------------|----------------|------------|--------------|----------------|------------|
| Chirisan | 6 | 36.80 | Gayasan | 2 | 7.80 |
| Chirisan(N) | 3 | 7.50 | Dukyusan | 3 | 10.18 |
| Chirisan(S) | 16 | 76.50 | Odaesan | 2 | 23.00 |
| Hanryehaesang | 1 | 2.30 | Weolaksan | 5 | 44.80 |
| Seolaksan | 10 | 59.10 | Bukhansan | 26 | 20.40 |
| Seokrisan | 16 | 67.70 | Bukhansan(W) | 4 | 5.40 |
| Naejangsan | 1 | 2.00 | Sobaeksan(N) | 2 | 8.60 |
| Naejangsan(S) | 1 | 0.75 | Total | 98 | 372.83 |

Source: National Park Authority(2002) National Park Trail Master plan

우리나라 국립공원 탐방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 공시하여 유지 관리하는 것을 법정탐방로(Table 1) 혹은 정규 탐방로로 그리고 탐방객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 등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시하지 않은 것을 비법정탐방로 혹은 비정규탐방로(Table 2)로 구분하고 있다. 조사대상지인 북한산과 치악산국립공원의 경우 법정탐방로가 각각 74개노선과 7개노선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산국립공원은 비법정 탐방로가 26개 노선의 20.4km로 이는 탐방객 편의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지인 도시형 국립공원인 북한산국립공원과 대도시 배후 산악형 국립공원인 치악산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를 이용한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국립

공원 탐방로 이용행태 및 관련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4년 4월 한 달 동안 사전 사회과학조사 방법론에 대해 교육을 받은 대학생 조사자들에 의해 주요 방문거점 등산로에서 임의표본추출 방식을 응용하여 이용객 직접접입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총 307매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이중 유효하지 않은 설문지 11매를 폐기하고 296매(북한산: 149매, 치악산: 147매)를 유효표본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 일반적인 이용행태, 등산로의 상태에 대한 인식, 훼손정도 및 심각성, 정비 및 관리 주체, 만족 정도 등을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PC 10.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결과 및 고찰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탐방로 인식조사의 현지 설문조사에 참여한 296명의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80.1%, 여자가 19.9%로 남자 응답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조사지역별 성별분포는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자 응답자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도시지역에 위치한 북한산국립공원 탐방로의 경

우 치악산국립공원이 비해 남성 응답비율이 약간 높은 분포를 보였다(Table 4).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양 국립공원 모두 40대에서 50대가 탐방객 전체의 50% 이상으로 탐방로 이용 연령계층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북한산국립공원이 치악산국립공원보다 이용 연령계층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전체 응답자의 71.6%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 경향의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직업별 분포에서는 조사대상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회사원과 자영업 종사자가 타 직종 종사자들보다 비교적 높은 분포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의 거주지별 특성은 치악산국립공원의 경우 서울, 경기도를 배후탐방 세력권으로 가지고 있지만 최근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경상도 지역의 접근성 개선으로 인해 비교적 광범위한 탐방권역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근교라는 위치적 특성을 지닌 북한산국립공원은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탐방세력권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Table 3 참조).

2. 일반적 이용행태

1) 방문경험

전체 응답자의 72.0%가 이전에 조사대상지의 방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방문율이 매우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 Item | Study Area | Category and frequency(%) |
|------------------|------------|--|
| Gender | Bukhansan | Male(83.0), Female(17.0) |
| | Chiaksan | Male(77.2), Female(22.8) |
| Age | Bukhansan | 18~20(0.7), 21~30(10.9), 31~40(22.4), 41~50(33.3), 51~60(25.2), Over 61(7.7) |
| | Chiaksan | 18~20(6.2), 21~30(20.0), 31~40(23.5), 41~50(32.4), 51~60(13.8), Over 61(4.1) |
| Education | Bukhansan | Middle school or less(0.7), High school(19.0), University(66.0), More than University(14.3) |
| | Chiaksan | Middle school or less(1.4), High school(35.9), University(57.0), More than University(5.6) |
| Occupation | Bukhansan | Agriculture · Forestry · Fishery industries(1.4), Independent business(28.1), Office worker(41.1), Professional and technical jobs(10.3), Public service personnel(5.5), Students(0.7), Housewives(6.8), etc.(6.2) |
| | Chiaksan | Agriculture · Forestry · Fishery industries(0.7), Independent business(29.6), Office worker(31.0), Professional and technical jobs(7.0), Public service personnel(6.3), Students(7.0), Housewives(7.7), etc.(10.6) |
| Residential Area | Bukhansan | Seoul(76.2), Inchen(4.2), Kwangju(0.7), Kyunggido(19.6) |
| | Chiaksan | Seoul(12.9), Taegu(21.6), Inchen(3.6), Kyunggido(19.4), Chungcheongdo(13.7), Kyungsangdo(7.9), Chenrado(0.7), Kwangwondo(17.3) |

Table 4. Visiting Experience

(단위 : %)

| Item | Study Area | Yes | No |
|---------------------|------------|------|------|
| Visiting Experience | Bukhansan | 85.6 | 14.4 |
| | Chiaksan | 58.0 | 42.0 |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특히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근린공원 성격의 북한산국립공원은 재방문을 (85.6%)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문횟수에 있어서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비율(46.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전국적인 탐방세력권을 지닌 치악산국립공원의 경우 재방문 방문비율이 42.0%로 나타났고 이용빈도는 일년에 1~6회 방문한다는 응답비율(63.7%)이 높게 나타나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에 따른 이용빈도의 차이를 판단할 수 있다.

2) 방문목적

치악산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들의 주요 방문목적은 비정기적 휴양활동으로서의 등산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건강유지를 위한 방문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이러한 결과는 입지적 특성에 따른 이용목적의 상이성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결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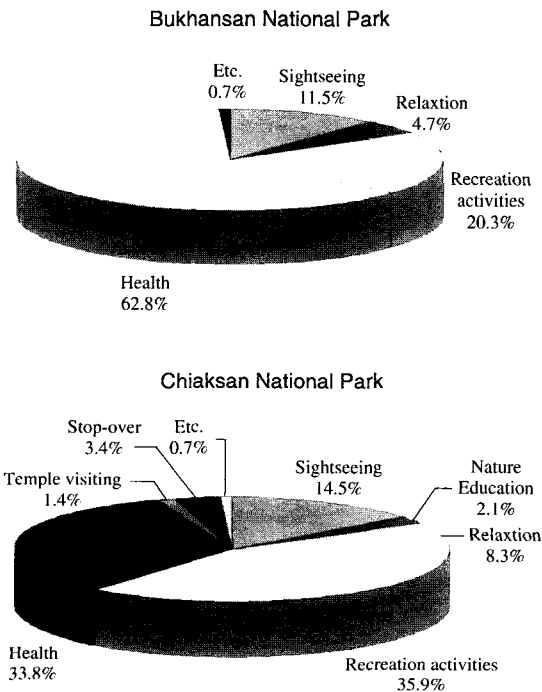


Figure 1. Visiting purpose

3) 동반유형 및 규모

응답자들의 동반유형을 살펴보면, 북한산국립공원에서는 친구동반과 가족동반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도시에서 비교적 떨어진 치악산국립공원의 경우에는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낮은 비율을 보였던 단체 방문 비율이 상대적 높게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이와 함께 동반자 수에 있어서는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주로 1 - 3인의 소규모의 유형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악산국립공원에서는 대규모 동반규모라 할 수 있는 15명 이상 동반규모가 42.1%로 단체 관광 경향을 보였다.

4) 등산경력 및 기술수준에 대한 인식

국립공원에서의 초보자나 미숙련 이용자의 휴양활동은 자원 및 시설이용에 있어 훼손을 야기하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자원 기반 휴양지에서의 효율적인 자원 및 시설 관리대안 수립을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경력 및 기술수준의 파악도 중요하다. 자신의 등산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북한산, 치악산국립공원은 5년 이상의 비교적 장기 등산경력자 응답비율이 각각 50.7%와 44.5%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등산기술 수준에 있어서는 조사대상 두 지역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보통수준에서 비교적 풍부한 등산기술을 지녔다고 응답하여 응답 경향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년 이내의 초보적 수준의 탐방객 방문비율이 각각 14~19% 범위로 나타나 국립공원 탐방로에서의 이용과 관련된 홍보 및 교육과 같은 간접적 관리의 병행을 통한 자원 및 시설훼손의 저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탐방로 상태에 대한 인식

1) 시설의 양적·질적 상태

탐방로 이용시설의 양적 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양 국립공원에서의 이용시설이 충분하여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경향을 보였으며(북한산: 56.6%, 치악산: 45.9%) 이들 이용시설들에 대한 질적 상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만족하여 이용에 별 불편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산: 62.6%, 치악산: 56.6%).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탐방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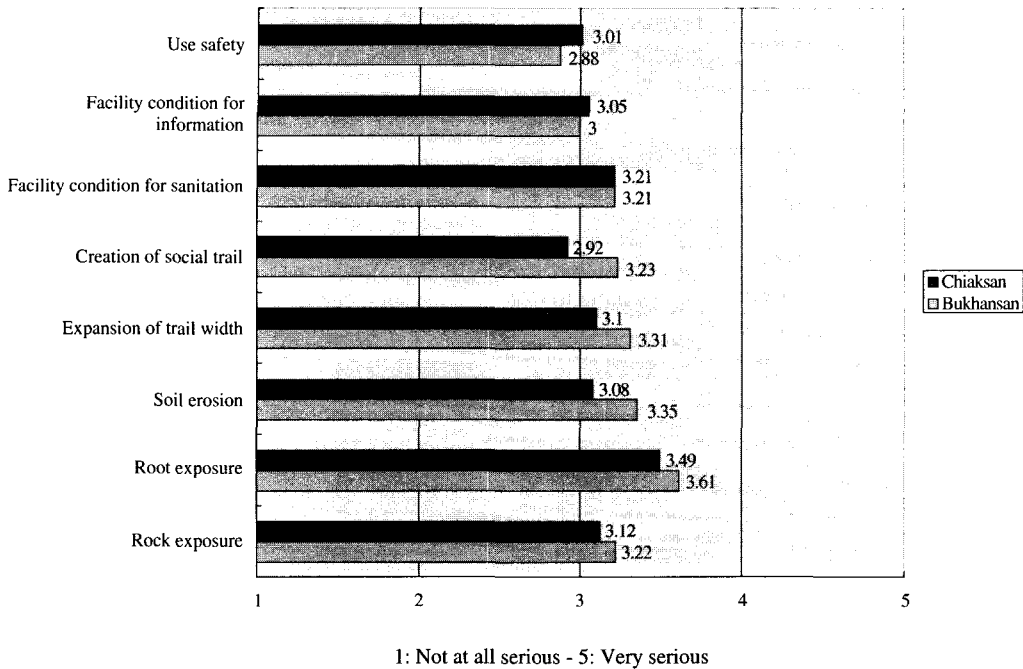


Figure 2. Visitor impact types and seriousness

상 이용시설은 현재 양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질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어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탐방로 훼손정도에 대한 인식

탐방로 훼손 정도를 5점 리커드 척도(1: 훼손이 전혀 없다 - 5: 훼손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로 측정한 결과, 두 공원 응답자들은 보통 수준에서 비교적 훼손이 없는 상태인 3점에서 2점 사이로 평가하였다(북한산: 2.82, 치악산: 2.64). 또한 조사 대상지별 훼손정도에 대한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공원간 훼손정도에 대한 탐방객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훼손유형 및 심각성

탐방로 이용과 관련된 9개 훼손 유형들을 추출하여

탐방로의 훼손정도를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각 유형별 심각성 정도를 5점척도(1: 전혀 심각하지 않다 - 5: 매우 심각하다)로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figur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공원별 훼손 유형 및 그 심각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양 국립공원 공통적으로 탐방로 주변 수목의 뿌리노출 및 암석노출 현상과 위생시설의 상태, 노폭확대 항목에 있어서 보통 이상 비교적 심각한 수준(3점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이들 항목에 대한 대상지별 평균값 차이는 T-test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좀더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지름길 생성 항목에 있어서는 치악산에 비해 북한산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5). 그러나 안내 시설의 상태와 이용 안전성 항목에 있어서는 북한산국립공원이 덜 심각하게 인식되

Table 5. T-test between parks for attitude on social trails

| Dependent variable | Independent variables | Mean | SD | t | Sig. |
|----------------------|-----------------------|------|-----|--------|-------|
| Social trail problem | Bukhansan | 3.23 | .95 | -2.120 | .036* |
| | Chiaksan | 2.92 | .86 | | |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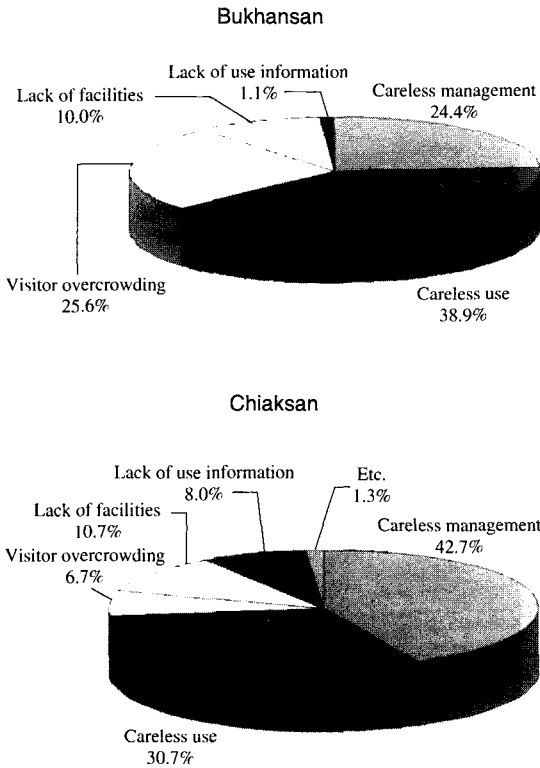


Figure 3. Causes of impacts on the trail

었다.

4) 훼손원인

탐방로 훼손의 정도가 심하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훼손의 원인을 이용객 자신들의 부주의한 행동과 관리주체의 관리 소홀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탐방로 훼손을 이용객의 부주의와 이용객 과다에 의한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치악산국립공원은 관리 소홀로 인한 훼손 발생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

탐방객의 행태는 이용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의 행동을 포함하며 이는 자원 및 다른 이용객의 이용 경험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이미 훼손된 자원 및 시설에 대한 정비도 중요하지만 특히 탐방객의 부주의한 행동에 의한 훼손이 발생되고 있는 탐방로에 있어서는 교육, 설득 또는 올바른 이용정보 제공과 같은 간접적인 관리방안의 병행으로 탐방객 행동의 동기를 변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3. 탐방로 관리 및 정비에 대한 인식

탐방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산: 83.0%, 치악산: 75.4%). 또한 탐방로 이용 후 응답자들이 느낀 가장 필요한 관리 및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두 공원 모두 응답비율의 차이는 약간 있으나 경사지의 시설도입 및 정비(계단, 손잡이 등), 훼손된 노면의 정비, 올바른 이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이러한 결과는 국립공원 탐방로상의 훼손유형은 유사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탐방로 정비 및 관리의 우선순위도 이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종합적인 이용만족 수준

응답자들의 전체적인 만족도 수준은 5점척도상 3-3.5점 수준으로 보통수준에서 대체로 만족하는 범위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Figure 4). 조사대상 공원별 만족도의 평균치(북한산: 3.43, 치악산: 3.34)에 대한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Table 6. Attitude to the priority for trail management

| Item | Bukhansan | Chiaksan |
|---|-----------|----------|
| Facility construction in steep paths(steps, deck, etc.) | 39.8% | 34.0% |
| Repair for gully erode trail surface | 28.0% | 28.2% |
| Provide use information | 9.3% | 14.6% |
| Maintenance for trail width expanded areas | 7.6% | 2.9% |
| Closing social trails | 5.9% | 6.8% |
| Maintenance of exercise facilities | 4.2% | 5.8% |
| Maintenance of sign boards | 3.4% | 6.8% |
| Etc. | 1.7% |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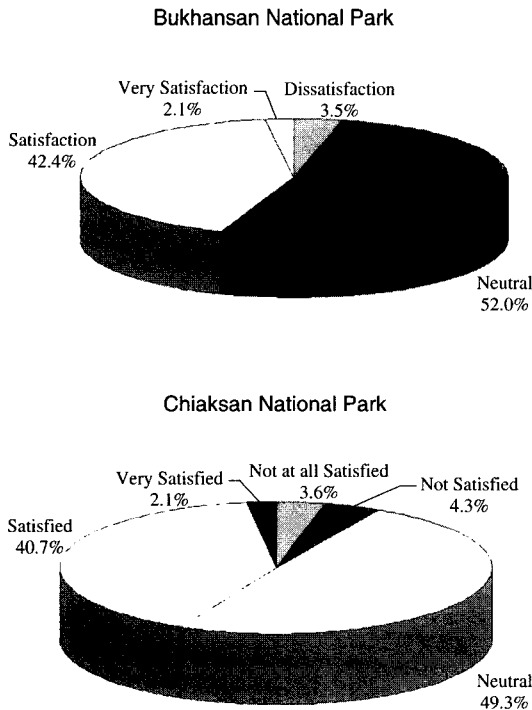


Figure 4. Satisfaction level

결론

본 조사는 효율적인 국립공원 탐방로 관리를 위해 탐방로 이용행태 및 이용 관련한 속성들에 대한 탐방객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입지적 특성이 서로 다른 두 곳의 국립공원 탐방로를 대상으로 탐방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국립공원의 입지적 특성에 기인한 탐방객력권 특성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건강증진과 등산과 같은 휴양활동이라는 이용목적도의 상이성도 함께 나타났다. 방문경험에 있어서는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근린공원 성격의 북한산국립공원이 치악산국립공원에 비해 재방문을 및 방문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의 탐방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두 국립공원의 탐방로 훼손 정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훼손이 없는 편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탐방로 이용과 관련된 8개 훼손 유형에 대해서는 탐방로 주변 수목뿌리 노출 현상이 양 공원 모두에서 가장 심각한 훼손 유형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양 국립공원 공통적으로 탐방로 주변 수목의 뿌리노출 및 암

석노출 현상과 위생시설의 상태, 노폭확대 항목에 있어서 보통 이상 비교적 심각한 수준(3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며 셋길 생성에 있어서는 북한산국립공원이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립공원 탐방로 이용에 따른 수목 뿌리 노출, 암석 노출, 노폭확대 등의 훼손유형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 마련에 탐방로 관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산 경우 셋길생성에 대한 대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탐방로 훼손 원인에 대해 북한산국립공원 응답자들은 탐방로 훼손의 원인을 탐방객 자신들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치악산국립공원의 경우 관리소홀을 탐방로 훼손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이미 훼손이 진행된 자원 및 시설에 대한 정비도 중요하지만 특히 탐방객의 부주의한 행동에 의한 훼손이 발생되고 있는 치악산 탐방로에 있어서는 교육, 설득 또는 올바른 이용정보 제공을 통해 탐방객의 행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탐방로 이용과 관련하여 경사지의 시설도입 및 정비와 훼손된 노면의 정비가 가장 필요한 관리 및 정비 부분으로 나타났으나 두 공원별 우선순위의 차이도 약간 나타났다. 이는 입지적 특성과 이용목적에 따라 훼손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탐방로 정비 및 관리의 우선순위로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국립공원 탐방로 이용객이 등산이라는 휴양활동에 참여하는 주된 목적은 만족스러운 경험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이용객의 참여목적에 적합한 환경에서 선호하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등산이라는 동일한 휴양활동이라 할지라도 이용 대상 탐방로는 이용객의 참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탐방로의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관리적 환경요소는 이용객 환경의 다양성에 의해 다르게 인식될 것이다. 그러므로 관리측면에서 모든 탐방로들이 통일된 관리지침에 의해 관리되기보다는 참여목적, 물리적 여건, 입지 환경 등의 다양성에 따른 탐방로 분류가 필요하며 이에 적합한 차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국립공원관리공단(2002) 국립공원 탐방로 관리 종합계획
산림청(2004) 등산로 훼손유형별 생태적 정비요령: 숲

- 길 정비 매뉴얼, 6쪽.
- 유기준, 김동필, 김용근(2001) 계룡산국립공원에서의 이용객 행태와 관리속성에 대한 이용객 태도. 한국환경생태학회지 14(4): 324-331.
- 일본 환경성(2001) 자연공원사업기술 지침, 210쪽.
- 한국갤럽(2001) 국민여가행태 조사보고서.
- 한국리서치(2003) 주5일 근무에 따른 야외생활 패턴 변화. 월간마운틴 11월호, 180쪽.
- USDI National Park Service(1988) NPS Trails Management Handbook, 87pp.